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 전역에 치러진 가운데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이달 3일에는 본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사전투표부터 본투표에 이르기까지 도내 투표소 현장을 둘러봤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 나는 당당한 유권자... 소중한 한 표 행사

사전투표 위해 줄 선 유권자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29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투표용지를 받기 위한 기다림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29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투표하러 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본투표 기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신흥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중화산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가족이 함께 해보는 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어린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용지 나왔습니다”



3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전주남중학교에 마련된 평화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소중한 한 표”



3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전주남중학교에 마련된 평화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